

위탁사육 계약서 조항 타당성 실무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월 28일(목) 본회와 양계협회, 축협, 수의과학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 사육농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육계위탁사육계약서 조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약관심사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전북 남원지역 육계생산 농가들이 사육계약서의 사용 약관중 병아리 폐사 문제에 따른 약주와 사육관리, 폐사율, 법정전염병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의 부담범위, 계근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 최초로 약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시각이 소비자시대를 대변하는 선진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며 회사와 다수 사육자의 협의과정에서 계열주체는 차라리 계약에서 50:50의 공정함이 이루어지기를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은 약자 또는 다수의 힘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장기화되고 있는 계육업계의 불황으로 계열주체의 채산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많은 자가사육농가들이 계열농장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최근 추세에 계열주체의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사육에 따른 위험부담을 강자의 단순논리로 접근함에 계열주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계열주체는 계약사육 보다는 자가농장 생산 또는 수매계약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2과 최정열과장의 사회로 육계업계 현황과 기술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대한 설명과 남원지역 생산자 협의회가 청원한 6개 조항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병아리 상태불량으로 발생되는 5일 이내의 폐사는 دم을 제외한 폐사수수만을 인정해 공제하며 농가 사육관리 부실로 인한 폐사에 대해서는 농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에 대해 약주 규명이 명확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계열별로 사육관리상의 차이를 인정해 전 사육농가 성적을 기준으로 삼거나 현재 사육완료일까지의 95%까지의 출하율을 겨울철에는 합리적으로 조절기로 하였다.

또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계열주체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농가가 실시해 문제야기시 현행 약정을 준수하되 실시하지 않고 발병시에는 농가가 전액 변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협의에 의한다는 단서조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는 한편 현재 전국 농가의 육계 숫자대비 백신소비율이 20%

에 달하는 것에 대하여 농가의 방역비 지원을 없애더라도 계열주체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과 법정전염병 발생시 기업과 농가의 손해보다는 국가방역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 줄 것을 논의했다.

천재지변에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제도나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며 현행 약정상 피해의 50:50 부담은 농가시설은 농가가, 병아리·사료 부문은 계열주체가 저 주기를 희망했으나 많은 문제점 야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밖에 계근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회사계근이 바람직하나 농가계근의 경우 감량 등의 문제로 계근비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으며 앞으로 도계수율에 따른 적정 사육비 지급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여건상 계약서 작성은 많은 예외사항에 대한 문제로 수시로 농가·계열주체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본회, 김태은, 이재하 대리 임용

본회는 김운호씨가 지난 10월 31일부로 사임함에 따라 경력사원을 임용했다.

11월 28일(목) 공채결과 경력 및 신입 응시자 다수 중 면접을 실시하여 이재하 과장대리(전국대 축산대학 사료영양과·졸, ROTC 28기, 전 유경축산 근무)를 96년 12월 1일 부로 발령하

였다.

한편 전임 김미순씨가 출산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 부로 김태은씨(서울산업대학 식품공학과·졸)를 이미 채용한 바 있다.

김태은씨는 앞으로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전문인사들의 도움으로 업계 활성화 기대

본회는 지난 11월 19일(화) 96-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4인의 고문추대와, 5인의 자문위원 위촉을 결의하였다. 이날 추대된 고문으로는 오봉국(대한양계협회 상임고문, 축산발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학술회 회장), 박근식(대한 수의사회 상근 부회장, 전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김강식(육류 수출협회 회장, 전 축산국장), 최준구(대한양계협회 회장)등이며, 자문위원으로는 정선부(한국 가금학회 회장, 제주도 농업축산시험장장), 김정주(건국대 충주분교학장, 축산사업평가위원회 양계분과위원장), 이영현(서울산업대 식품공학과 학과장), 류철호(농경연 축산실장), 김기석(수의과학연구소

계역과장) 등을 신규 위촉하였다.

'97년 7월 닭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계육협회가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촉진 홍보사업, 시장조사사업, 생산성 향상 등 전문성을 요하는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업계의 원로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인사들의 도움이 활성화되어 국내 닭고기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출산업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고문 추대 및 자문위원을 위촉케 된 것이다.

이로써 본회는 박영인 고문, 황인옥 상임고문 등 고문 6명과 자문위원 5명이 되었으며, 오는 98년 12월말이 임기이다.

회원사 경리·회계담당 책임자 회의

올들어 두번째 개최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본회 회원사 경리·회계담당 책임자 회의가 개최 되었다.

(주)하림 경리부 이정오 부장의 '96 결산대책 및 사례발표'에 대한 세미나 개최 후 가진 이날 회의에서는 96년도 결산준비 및 실무차원의 사례연구를 심도 있게 논의 하였으며 각 사별 처해진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기업 회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원사 회계담당 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고 계열주체 공동의 법인회계 문제점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내년에 도 분기에 1회씩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회의를 가질 것을 결정했다. 경리담당책임자 회의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이래 금년 들어 2번째 갖게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97년 4월 10일(목) 본회에서 개최기로 하고 토의 주제를 '법인경정조사 및 보정요구 대비방안'으로 하여 각 사별로 사례를 준비하여 발표 및 토의 하기로 하였다.

죽은 닭으로 양돈사료 생산

전북 남원시 농촌지도소는 죽은 닭을 이용해 양돈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환경오염방지와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료는 닭 폐사체를 분쇄해서 고압발효기로 멸균하는 과정, 진공으로 건조하는 과정, 톱밥과 쌀겨 등으로 부산물을 섞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이 양돈사료는 단백질과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어 일반사료보다 50% 정도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닭폐사체 처리에 따라 양계농가의 어려움과 질병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농촌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대연식품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주)대연식품(대표 : 한형석)이 지난 12월 4일 경기도 제1회 중소기업 대상(경영부문)을 받았다.

동사는 경기도내 각 국회의원,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이인제 지사로부터 대상을 수여 받았다.

(주)대연식품은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시책에 우선 반영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 불황속에서도 정부의 닭고기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산업 발전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출산업이나 전자, 반도체 업체의 우선 순위에 밀려 제조업에서 이런 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이번 심사에서도 업종분류에서 감점이 있었으나 노사부문에서 평가가 좋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 내 2만개의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수업체로 수상한 데에 따른 동사의 약진에 찬사를 보낸다.

철저한 위생관리는 생산성향상의 지름길

회원사 종계 노계도태 협회에서 알선 도태종계 관리철저로 종계 재둔갑 방지

계육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이 지난해 말 이후 종계 부족으로 무분별한 종계입식으로 야기됐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자의 종계 숫자가 소요량 보다 많은 보유수수로 업계는 지난 9월 이후 노계 조기도태, 입식자제 등을 합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군소 업자들의 추세 파악이 어려워 PS 숫자 또는 병아리 생산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종계수를 줄이기 위해 한편에서 감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 종계장은 환우를 실시 환우계가 산란을 시작하는 금년 말 이후 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각 업체에서 도태한 종계노계가 병아리 가격이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면 기대심리

로 제3의 종계장 또는 산란농장에 유사 종계로 입식 되는 사례가 빈번해 종계숫자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특히 환우계의 숫자는 전혀 파악이 안됨)

이에 본회는 회원사의 도태종계 관리철저를 위하여 계열사의 사육종계 도태시 각사대표 및 사육책임자 협조로 필히 협회를 통하여 가금처리분과회원사 노계전문 도계장에서 도계를 실시키로 결의하였다. 노계 도태 알선 업무의 활성화로 앞으로 회원사에서 도태되는 종계가 다시 종계로 둔갑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현재 회원사 종계노계는 (주)정우식품(대표 이한철, 본회감사)등을 통해 전량 처리되고 있다.

미국 닭고기 가공장 시찰단 모집

—양계 박람회 참가 및 도계장 시찰—

본회는 97년 1월 22일 부터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개최되는 미국 양계박람회 참관과 미시시피 주에 있는 닭고기 가공장 견학 시찰단을 구성해 8박 9일 일정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단은 5만수~10만수 규모의 계열회사 방문, USDA 수의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 안내를 위해 닭고기 가공 전문가(대학교수)가 동행해 기술적인 설명과 세계 최대 닭고기 생산·수출국의 현황을 통역할 예정이다. 시찰단 규모는 15명 내외로 협회 회원사 임원들로 구성되며 '97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일간지 유통, 식품 담당기자와

식품 전문지 기자, 홍보전문회사 담당자들이 함께 동행할 예정이다.

문의 또는 참가신청은 12월 23일(월)까지 본회(Tel : 536-9855~6, Fax : 595-6028)로 하면 된다.

도계장 위생에 더욱 관심을

살모넬라검출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계장내의 위생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은, 도계장내의 폐수처리를 위한 활성오니조의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계장 소독이 안된다는 점과 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닭고기의 위생적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계장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사료내의 미생물 검사와 특히 생산단계에서의 방역관리가 절실하다.

결국, 살모넬라 등 세균의 오염에서 탈피,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단계별 종사자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계장 검사원의 국가 수의사 공영제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언론, 닭고기 기사 게재 활발

지난 11월 12일(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96 국제 닭고기 요리경연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된 후 닭고기 요리에 대한 국내 전 매스컴의 관심을 받아 많은 보도가 이어졌다.

본회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미디어트레이닝 실시, 프레스킷 제작,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프레스킷에서 행사의 배경뿐만 아니라 참가자 정보, 요리법 등을 사전 배포하고, 닭고기의 우수성, 한방과 닭고기 등 많은 자료를 수록해 배포해 줌으로써 기자들이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공중파방송은 SBS-TV 이경실 세상을 만나자, 아침뉴스, KBS-TV 뉴스광장, Cable TV는 MBN(산업경제뉴스), YTN(경제생활), TTN(뉴스), 동아TV(여성뉴스), 일간지는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문화, 한겨레, 경향, 국민, 서울,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제일경제 등외에도 코리아 타임즈, 코리아 헤럴드이며 많은 시사지, 주간지, 여성지, 월간지에도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본회 회원가입 활발

-정회원 외 계육산업 관련 모든분야에 준회원 개방-

지난 4월 2일 본회 명칭이 9년만에 가금처리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로 변경된 후 새로운 정관에 의해 사업내용과 회원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본회가입 신규회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11월말 현재 정회원 33개사대표(통합경영분과 14, 가금처리분과 19) 외에 준회원 36개사대표, 특별회원 21명으로 회원은 90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내 1백명 수준에 달할 것이다.

현재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닭고기 산업이 생산, 처리, 가공, 유통, 소비까지 통합 경영개념으로 산업구조가 변경되고 있는 업계 현실에 맞게 계열생산주체 및 가금 처리업계(도계장)로 구성된 정회원제도와 계육산업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인사로, 약품, 부화, 종계, 유통, 기계·기구, 외식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인사(또는 법인)들이 대상인 준회원, 계육산업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지식인, 학회, 관련기관 근무자(또는 법인)로 구성된 특별회원 제도를 두고 있어 정회원은 매월 1~2회의 정기적인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업계현안을 논의하고, 준회원(특별회원)은 년 4~5회의 각종 회의에 참

석해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와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참여, 각종 정보자료, 인쇄물,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세미나 및 친목 모임에 정기적으로 초청하고 있다.

본회는 앞으로 회원사 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회원사간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본회 가입은 입회신청서(소정양식)와 관련회비 납부로 가름하고 있으며 정회원은 사업규모에 따라 회비(일반 및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고 있으나 준회원은 연간 10만원, 특별회원은 연간 3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스리랑카, 육계불황

사료가격이 300% 인상됨에 따라 스리랑카 양계농장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사료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병아리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의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있어 병아리 생산비보다 낮게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육계농가들은 소비자들

에게 값싸게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소비심장은 어려운 실태이다.

러시아, 가금육 생산 감소

러시아 '95년 가금육 생산량은 80만4천톤으로 이는 5년전에 비해 약 45% 수준이며, 이중에 닭고기는 48만 4천톤으로 '90년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95년 이후 40여개의 가금농장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운영중인 농장의 대부분도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 일부는 지난 수년간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값싼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정부의 재정적인 후원은 부족하기 때문

'97 계육인 신년인사회

정축년 새해 계육산업계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는 한국계육협회 신년인사회를 오는 97년 1월 7일(화) 오후 5시 팔레스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갖는다.

본회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과 관련업계 인사들이 초빙되는 이번 신년인사회는 계육업계로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참석자 상호간 새해 인사와 수입개방 원년이 되는 97년의 닭고기 업계의 힘찬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닭고기 소비행태 조사보고

추가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인사이트 리서치 (대표 박수일)
전화 : (02)562-1216 FAX : (02)501-2509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M & CO., LTD.

계열사육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살모넬라 대책 및 종계장 방역관리 세미나』도 열어

계열생산 책임자 정례회의가 지난 11월 20일(수) 본회의회의실에서 회원사 생산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소비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살모넬라 대책 및 종계장 방역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후 (강사 동원 신약 김병기 박사) 안전토의에 들어갔는데 계열사 종계장리에 대한 의견교환과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는 1일령 ND분무 백신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전토의에서는 각사별 10월 입추실적 및 11월 입추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중순이후

계열사 입추 실적은 전월대비 약 16%가 감소하였으나 종계장 생산병아리가 싼값에 공급돼 일반 육계농가 사육이 줄지 않아 12월 중순 이후 닭생산이 많을 것으로 예측해 불황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10월 말 계열사 입추수조정이 일부 부회장에서 입추 적기로 선전해 노계도태를 준비하다가 입추를 위해 노계도태실시를 미루는 사례나 도태된 종계노계가 제3의 농장에 다시 입식되는 경우가 있어 계열주체 노계도태는 회사차원에서 전량 협회 알선을 통해 처분기로 협의했다. 12월 회의는 인천 미란다 호텔에서 12월 20일(금) 오후 3시에 송년모임으로 개최기로 하였다.

OECD가입으로 국내축산물 안전성문제 관심커져

서유럽국가들의 경제협력 필요에 따라 구성된 29개 선진국의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교육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10일(화) 주식회사 현축(대표이회훈)에서는 OECD 가입이후 검역, 도계유통, 방역 등에 대한 양계산물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OECD 가입과 양계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 권경남 과장, 농림부 가축위생과 최홍렬계장, 국립동물검역소 강두황 계장, 수의과학연구소 김기석과장, 중원농장 김태환 이사, 금강농장 이양의 사장, 본회 남두희 상무 등이 참석, 현대 양계 이회훈 사장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OECD가입에 따라 축산업의 여건변화는 물론 계육산업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환경문제 등 소비자의 요구와 식품에 있어 잔류물질 또는 오염문제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시급히 요청되는 만큼 농장에서 부터 사육, 도계, 유통, 소비의 각 단계별 HACCP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라는데 입을 모았으며 정부에서는 이와관련 방역 위생예산을 늘려 시행키로했다.

특히 방역위생 부문에서 97년도는 174억원의 예산을(양계부문 25%, 43억원) 투입해 97정책 과제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생산여건이 선진국 수준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양축가, 도계업계, 유통업계 모두의 분발이 아쉽다.

육류 오염방지 대책 Task Force 운영

-농림부 가축위생과 주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오염이 가능한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육류중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 대책 Task Force팀'을 운영한다.

농림부 가축위생과 배상호 과장을 팀장으로 광형근 위생계장이 간사를 맡아 김홍국 본회 회장, 김옥경 소장(동물검역소), 이재진 소장(수의과학 연구소), 손봉환 소장(인천 가축위생시험소), 정진홍 회장(축산물 위생처리협회)을 위원으로 하며 실무위원으로는 학계에서 강원대 홍종해 교수, 업계에서 축협 기술 환경부장, 한국 냉장 중부 육가공 공장장, 축협 김제 육가공

장 생산부장, (주)체리부로 허충무 감사원, 관계에서는 수의과학연구소 안정성 과장, 동물검역소 위생검사 과장, 경기도 가축 위생 시험소 박병옥 계장 등이다.

모임은 10월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실태 및 원인 파악, 병원성 미생물 관리실태 및 제도 사례연구, 오염방지 대책 수립, 도축(도계) 검사 지침 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사료검사,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대책과 HACCP도입을 위한 대책수립, 검사결과 오염된 육류에 대한 소독 및 각종 대책을 수립 할 예정이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활발히 전개

금년 11월 현재 3억8천 여만원 사업비 지출

본회가 중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금년도에도 활발히 전개돼 일반소비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닭고기는 3저1고 제2회 아반테 자동차 타기 퀴즈잔치를 시작으로 닭고기 우수성 라디오 광고(MBC 여성시대 등), 닭고기 소비행태조사 연구(인사이트리서치 협조), 위생닭고기 구매요령 전단 10만매 제작 배포, 한국부인회 도계장 견학 주선, 여고·여대 닭고기 조리실습 실시(양계협회 협조, 3,040명 대상)에 이어, 전문 홍보대행사인 KPR사의 협조로 회원사 임원 미디어트레이닝 실시, Press kit 제작 배포, 기자간담회 실시, 개별 인터뷰 및 방송출연, 주한외국대사부인 초청 국제 닭고기 요리 경연대회 등을 실시, 활발히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정된 인원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3저 1고 식품인 닭고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일간지 기자, 주간지, 여성지의 식품 및 유통담당기자들은 한국계육협회의 새로운 위상을 느끼며 협조를 위해 닭고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가고 있다.

협회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위주로 사업을 실시해 우수한 식품으로서 닭고기의 이미지 개선과 저변확대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연초에는 일간지와 여성지의 식품 및 유통담당기자를 미국으로 안내해 선진국의 닭고기 소비 실태와 건강식품으로서의 닭고기 선호 배경 등을 보여줘 기자들 스스로 닭고기 소비촉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96년도에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비는 11월 말 현재 본회 3억 6백여 만원, 정부부조금 지원 8천여 만원 등 총 3억8천6백여 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본회 사용금 전액은 통합경영분과 회원(계열주체) 11개사가 특별회비(광고비)를 거출 각사별 규모에 따라 1천2백만원에서 7천5백만원까지 분담한 것이다.

본회는 수입개방 원년이 되는 97년도에 지속적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가금가공학 책자 구입안내

서울산업대학 출판부가 발간한 '가금가공학'책자는 그 동안 털과 내장제거 위주의 국내 도계업계에 도계운반, 도계공정, 부분육 또는 발골 공정에 대한 소개와 닭고기 제품의 생산, 닭고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에 대한 접근 뿐만아니라 장기간 보관방법, 도계가공 공장의 부지 선정과 설비 배치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의 집필로 닭고기 가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드문 형편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도계장 운영자나 현장기술자 뿐만아니라 가금 전공을 희망하는 축산학도, 닭고기 가공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구입을 희망 하시는 분은 본회로 문의 바란다.

김홍국 회장 애향대상 수상

본회 김홍국 회장(하림 대표)이 지역사랑과 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17일(화)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로부터 전주 코아호텔 시상식장에서 전라북도 애향 대상을 받았다.

전북 애향대상은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구현과 향토 전북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에는 금상 6명, 대상 1명이 선정되었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에마로치킨

Chicken



(주) TS 에마로
TS HAIMARROW Co., Ltd.

필리핀 육계업계, 연간 3억수 생산

- 4개 계열업체가 80% 시장점유 -

필리핀의 육계산업 규모는 연간 3억수 정도의 생산규모에 4대 계열주체가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생체 1.7kg 전후를 생산하고 있다. 필리핀도 금년에는 육계업 불황으로 원가 이하 판매가 연중 이어지고 있으며 WTO체제하의 수입개방 대처가 업계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업계는 주로 에이비안과 아바에이커를 사육하고 있으며 1kg당 생계생산비는 평균 34~35peso(1peso≒32원)에 이르며 가까운 태국의 닭고기가 수입될 것에 염려를 하고 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특히 종계생산성)으로 준비하고 있다.

연간 1억수 정도 생산으로 최대 계열사인 SWIFT FOOD사는 AVIAN GPS만을 보유하고 100% 계약에 의해 30개 종계장, 17개 부화장, 500개 사육농가에서 자체 사육해 생산량의 20~25%는 생계로 중소규모 계열사에 판매하고, 50%는 자체도계장에서 도계 후 유통시키며, 25% 정도를 가공, 부분육으로 외식업계에 납품하고 있다.

종계위탁사육의 경우 25주까지 육성비를 지급하고 65주까지

산란후 회사 계획에 따라 도태시키는데 노계비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육성비는 90% 생존율을 기준 평균 32.5peso(1,040원 상당)로 1~25주 생산비 195peso(6,240원)중 계사비용, 에너지비, 노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5주 생존율, 균일도%, 체중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육성중 사료는 농가 요구대로 주며 체중과 생존율만 확인하고 계열사 직원이 매일 방문해 컴퓨터 관리하고 있다.(닭 이외의 개, 오리 등 사육이 불허 됨)

산란기간(25~65주) 성적은 종란 165개 생산기준으로 개당 2.35peso(75원)를 지급하는데, 이하인 경우는 벌금을,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산란기간 사료섭취는 275~282g/egg이다. 종란 값은 6peso(192원)이며 한 계사에서 입추, 육성, 산란을 하며 65주 도태 후 2개월 후에 신계를 입식한다.(이동에 따른 온도 스트레스 감안) 평균 부화율은 입란대비 87.5%이다.

계사는 12×120M에 반 고상식으로 10개로 구획을 나누어 암컷 750×10→7,500수를 평사

로 기르며 10%의 숫컷을 더 넣어주고 있다. 자동급수와 수동급이시설에 2명의 관리인이 있다.(사장이 수시로 노동력 제공)


필리핀은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순으로 소비가 많은데 1인당 14kg의 돈육소비에 비해 7kg 수준의 닭고기 소비신장을 위해 각 계열주체는 수년전부터 TV광고와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냉장육(Fresh meat)과 냉동육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회는 지난 12월 4일(수)부터 3일간 필리핀 최대 브로일러 계열주체인 SWIFT FOOD사와 SAN MIGUEL사를 방문해 종계장과 부화장을 견학하였다.

참가한 회원사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칙에 입각한 종계장, 농장관리로 위생관리상태가 좋고 생산성 향상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필리핀 육계업이 계속 발전할 잠재력을 느끼게 됐다. 이번 필리핀 방문은 (주)동원신약(대표 조병곤)과 룡메류 한국지사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2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주)중원농장

영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도계장·도축장 폐기물 처리 하소식

털·내장·피 등 기타 부산물 일체, 음식을 찌꺼기까지
완전처리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
특수공법으로 제작되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원 제20842호
·발명특허 등록원 제28391호

(주)태양환경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76번지
전화 : (0561)748-1095~6